

명절

節日

한국에서는 설날과 추석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조상들께 감사도 드리고 조상들이 후손들을 잘 보살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차례를 지냅니다. 옛날 사람들은 조상들이나 여러 신들의 보살핌 덕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절을 조상들께 감사하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명절 모습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차례를 지내지 않는 집도 늘었고,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는 집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변하지 않는 명절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 가족이나 친척들을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덕담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변함없는 명절의 의미는 아마도 가족들과 만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